

# “불교 전문서점 제자리 찾았다”

## 서비스개선·고정독자층 확보로 경쟁력 유지

전반적인 출판환경속에서 '고급정보의 공간'으로서 불교 전문서점이 불자를 비롯한 일반 독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매장공간도 넓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와 홍보,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

몇년 사이 대형매장과의 차별화, 전문화의 특성을 내걸고 변신을 시도하거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종교 미술 아동 등 전문서점들은 변화된 시대의 서점문화에 반영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각 분야의 깊이 있는 고정 독자층을 확보함으로써 꾸준한 신장세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4년 8월 등장한 본사 부설 책방 여시아문(대표 김광삼)이 불교전문서점으로 서서히 입지를 다지고 있고, 3년전

자리를 옮긴 관음순(대표 강관음순)도 어린이 불서전문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법륜사 직영 불일서점(대표 현호스님)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여는 등 불교전문서점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방에서도 대구의 삼영불교서점(대표 이승환), 부산의 불

서적을 구비, 각종 서지정보와 출판예정 정보(소식지)의 전달에 집중하면서 판매용 도서 외에 희귀본 열람용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보현각등 오래된 불교서점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시작한 여시아문은 불교 용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는 '책 중심' 불교전문서점의 효

과를 이르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8층의 자체 빌딩에 출판사와 인쇄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30여년 전통의 삼영불교서점은 120여명의 매장에 불서와 불교용품을 함께 전시 판매하며 대구지역 종합불교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8년 전통의 부산

불교서적전시관도 3층짜리 자체 빌딩에 70평 규모의 불교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1층 불교 용품 매장과 3층 불상·탱화 전시관을 함께 갖춰 부산지역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대전의 보문불교서점과 진주의 제일불교서점 등도 30여년 전통의 이름난 불교서점이다.

전국 90여개에 달하는 불교서점은 대부분 불서와 불교용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서점들은 많은 불자들이 불품

비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삼영불교서점 이승환회장은 "대형매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독자의 욕구에 성실하게 응답한다면 더 많은 예비불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대표적인 전국의 불교서점들

소재지	서점명	전화	소재지	서점명	전화
서울	책방여시아문	737-0695	춘천	불교문화원	53-3866
	불일서점	733-5388	마산	마산불교사	42-2485
	보현각	733-0333	진주	제일불교서점	41-5832
	운주사	720-9373	경주	불교서점	749-1580
	관음순	720-1147	전주	상운각	74-6639
부산	불교서적전시관	632-7393	제주	불교서점	57-3321
	고려불교예술원	807-6842	공주	백재불교서점	55-5621
대구	삼영불교서점	421-3980	대전	보문서점	847-2819
인천	인천불교서점	773-9086	상주	제일서점	535-2377
광주	원각사불일서점	232-7542	충주	구원불교사	848-8411
대전	보문불교서점	253-6446			

### 성우스님 시집 '선시' 펴내



성우스님

〈선시〉는 성우스님이 호주 타스마니아라는 섬에서 들어 가는 문만 있고 나오는 문이 없는 집, 흔히 무문관(無門關)이라 불리는 곳에서 참선에 정진하고 있을 때 쏟아져 나온 시어들로 모은 것이다. 시집에는 '석성우 시인의 선사세계'란 이상범시인의 시평이 실려 성우스님의 시세계를 엿보게 한다.

### 탁박한 스님 '사랑을 배우는' 美서 출간

#### 무상·무아·열반을 현대인에 맞게 재해석

이념의 대립과 빈부의 갈등을 내면적인 각성과 사랑의 이해로 평화를 실현하고 있는 베트남 탁박한 선사의 96년 신간 (사랑을 배우는(Cultivating the Mind of Love)) 이 버클리외의 파라락사에서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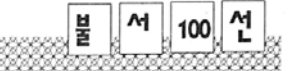
책에서 탁박한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 세가지 무상(imp-ermanence) 무아(non-self) 열반(nirvana)에 주의를 기울인다. 세가지 가르침을 현대인들에 맞게 재해석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권유, 현대인들의 상실감을 불교적 명상으로써 치유하려고 하고 있다. 만물은 무상하고 고통이 있다고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 할 지 모르나 무상함은 현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하는 지혜로움이라며

“무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며 단지 자유로운 시각과 실천을 꿰뚫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사용하라”고 당부한다.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안에 모든 것과 연결, 공존하고 있으며 아무런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아의 개념속에서 명상에 거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열반을 고통과 관념의 소멸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욕심 증오 무명의 세가지 고통을 소멸시켜야만 해방될 수 있다. 형상이나 관념에 얽매어질 실제를 알아버리게 되므로 그러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전해주는 탁박한 선사의 수행 비결이다. 〈남〉

### 명사추천



### 화엄일승법계도

의상은 지엄의 문하에 있을 때에 '화엄일승법계도'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귀국 후 황복사에서 표훈·진경(表訓·眞定) 등의 제자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이 때 의상이 강론한 내용을 제후법사가 받아 기술한 것이 〈화엄일승법계도〉이다. 이 책은 7인시의 30구로 된 총 210자를 4각형으로 배열한 법계도와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화엄경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십지론(十地論)을 설명하여 원교(圓敎)의 중요(要要)를 나타내고 있다. 곧 그 속에는 '일즉일체(一即一切)요 다즉일(多即一)이며, 일중일체(一中一切)요 다중일(多中一)이다'라는 원융(圓融)사상이 담겨있다.

화엄사상의 근본은 연기(緣起)에 있다. 우주의 본체요 진여(眞如)인 '하나'가 연인에 따라 일로 커어 되고, 둘은 다시 넷이 되어 결국은 삼리만상을 구성하게 된다.



김두진 (국민대 교수)

### 만물의 조화·균형의미 밝혀 의상 화엄사상 이해 길잡이

반면 삼리만상은 근본인 '하나'에서부터 연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假相)에 불과하기 때문에 끝내는 원칙적인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성기(性起)라 부른다. 화엄사상은 연기와 성기에 의해 우주의 삼리만상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일면 부처지는 속에, 무진(無盡)한 사바세계의 조화와 균형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그러나 화엄학자에 따라 '하나'에 의해 만들어진 제법상(諸法相)을 실제로 보아 그 의미를 부여하는 연기론적 입장을 견지하는가 하면, 그것을 먼저 알아져 버릴 지도 모르는 허상으로 보아 근본인 '하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성기론적 입장을 뚜렷이 하기도 한다. 〈화엄일승법계도〉에서는 "하나의 조그만 티끌 속에 사방의 광대한 세계를 포함한다"고 하여 성기론적 입

고 구조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상은 문하 제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정표로서 〈화엄일승법계도〉를 찍어 전했다고 하며, 특별한 실천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코 그 계율적인 수행자로서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성기론을 중심으로 한 원용사상은 조화와 균형, 포용과 질서를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그 속에는 불타의 위대한 가르침이 자리잡혀가 하면, 국가 사회를 이끌어 가려는 세련된 지성은 물론, 정도를 회구하는 서민들의 애환이 함께 스며 있다. 〈화엄일승법계도〉를 통해 저마다의 목소리로 혼돈된 삶이 이어지는 오늘의 사회를 바로 이끄는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禪의 정신의학

국립정신병원 정신과장을 역임한 김중해박사의 논문과 기타 유고(遺稿)를 모은 〈禪의 정신의학〉이 책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박사는 생전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독특하고 창의적인 치료법인 영상요법(影像療法)을 발표해 세계정신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영상요법은 신라의 불상 사진을 특별한 방법으로 디자인해 전시함

### 영상요법통한 독특한 치료법 소개

으로써, 그 각각 혹은 모든 영상의 시각적 암시 효과와 함께 환자의 자각을 기대하는 치료법. 원호스님의 사상·실천과 정신분석적 자아심리학의 거두인 에릭슨(E. H. Erikson)을 함께 공부하던 중

### 저마다 깨친 인연이...

조계종 수선회 부회장이자 김원환씨가 한국 중국 일본의 90인 오도송(悟道頌)을 모아 깨친 인연(眼耳鼻舌身意)별로 엮은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를 펴냈다.

오도송은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로병사를 벗어난 대자유인들의 깨달음의 노래다. 비구 비구니 거사 보살 등 90인의 오도송을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

### 한중일 고승 등 90명 오도송 총집합

고, 맛을 보고, 뜻을 알고, 물을 면저서 깨친 인연별로 소개해 그들이 수행한 방법과 깨달은 인연을 분반도록 한다. 이 책은 깨달음에 남녀노소가 없고 승속이 다르지 않음

### 새로운 책...

▲부처는 없다(불은스님 엮음)=처음 보리의 마음을 내어 불교에 입문한 이들에게 주는 원호, 보조, 아운스님의 〈발심수행장〉(개초심학인문) 〈자경문〉 등 세 분 옛 스님의 간곡한 말씀을 엮었다. 먼저 원문의 해석을 몇 줄 싣고 경전상 합치되는 경구를 뽑아 밑에 실었으며, 불가에 전해지는 예화를 원문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다. 〈사경공덕원 4천원〉

▲우주의 생명(스티븐 와인버그 저)=우주의 생명에서부터 인류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20세기 과학의 각 쟁점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석학 14인이 집필한 10편의 에세이 모음. 지평 150년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중과학 일간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94년 특집호를 옮겼다. 〈김영사 1만5천원〉

▲한문이란 무엇인가(김도련·유영호 공저)=김도련교수(국민대 중문과)와 유영희씨(고려대 강사)가 오랜 한문강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문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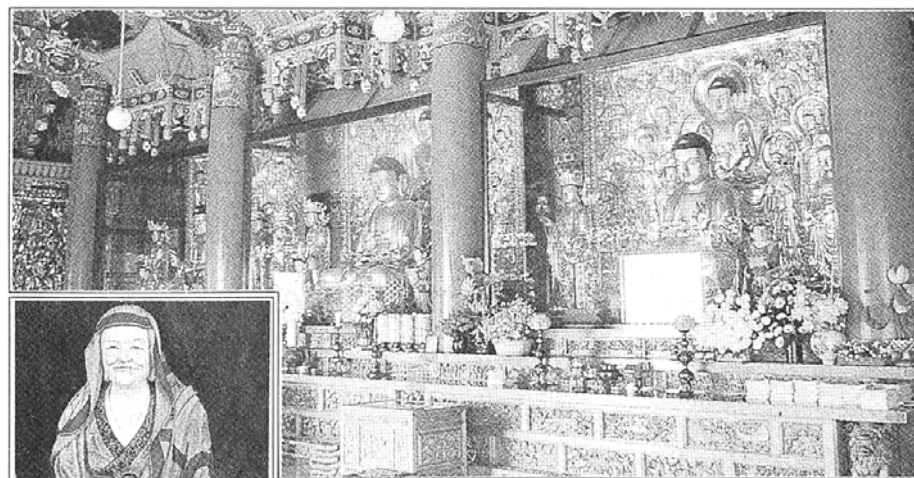
####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기자·편자	출판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2	기도	일타	효림
3	농염경 주해	윤허	동국역경원
4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5	무소유	법정	범우사
6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종화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8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비	민족사
9	업보	해법	밀알
10	불부처	이근후	여시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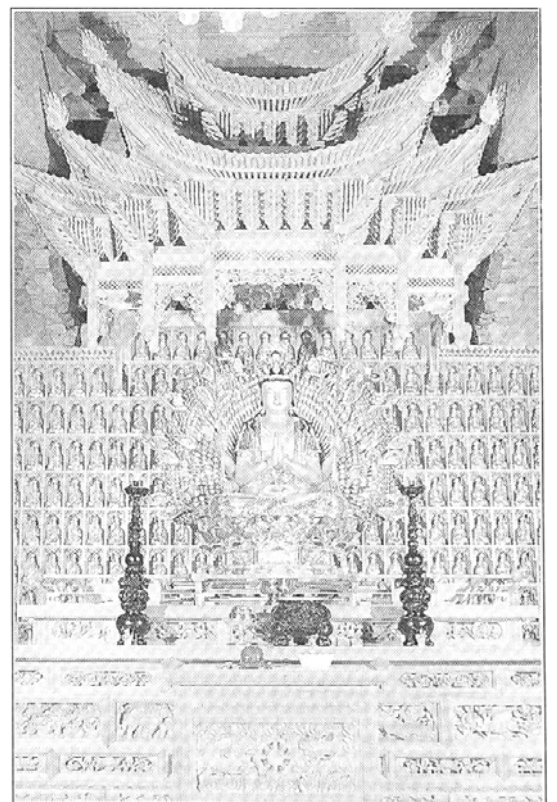
규원문의: (02)737-0695



##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명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범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 사무실 (02) 738-8447~8
- 공장 (051) 804-8907
-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진형 합장